

목어 **난민들**



질사는 나라 호주가 요즘 려차 못하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흘러 들어온, 이른바 '난민들' 때문이다. 수용난민들은 수용시설을 개선하고 사람다운 대우를 해 달라면서 단식농성에 자살위협까지 하고 있고, 국제 사회에서의 호주를 향한 비난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베트남전쟁이후 '보트 피플'이란 이름으로 등장한 세계적 난민이동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건디기 어려운 여건의 나라에서 삶이 비교적 잘 보장된 나라로 사람들이 무조건 흘러 들어가는, 새로운 현상의 하나다.

난민 문제가 어디 호주에만 있을 것인가. 구미선진국들은 물론, 한국 땅에서도 이런저런 난민문제가 적지 않다. 인구증가, 그리고 정보화가 가져올 미래세계를 이인수타인은 '말이 었을 받아 수증기가 되고나면, 구성분자는 물과 다름없으나 그 사용방법은 물과 같을 수 없다'고 표현했다던가.

정치적인 부자유나 가난에 쉽게 제법할 수도 있었을 사람들이 발달된 정보 시스템에 힘입어 자신들의 남다른 고통을 알게 되고 분노하며, 그 비참함을 풀이낼 가능성이 나라로 흘러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근대까지 만해도 '물의 상징'이었던 인간 감정이 이제 수증기화 되었다고나 할까.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그 관계를 푸는데 더 이상 근대적인 방법에 기대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프랑스의 지성인 자크 아탈리는 그의 '21세기 사전'에 '보디사트바보살'라는 항목을 두고 이렇게 설명한다.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형.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중생을 돕기 위해 자신의 안락을 포기한 사람. 어딘가에 고통 받는 사람이 남아있는 한 결코 휴식할 수 없는 사람. 21세기에는 각자가 관용과 박애의 정신으로 이러한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 21세기 인류가 온전히 살아남으려면 모두 보살이 되는 길 밖에 없어 보인다.

김정자(언론인·본지 논설위원)

# 인간배아연구 방치할 수 없다

## 불자 세상보기

인간 누구나 건강과 생명 연장의 꿈을 안고 있다. 의학과 생명과학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나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가? 지난해 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기본법안'에 이어, 금년 또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안이 발표됨에 따라 종교계와 생명윤리화학자들이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전에 불인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이유 역시 인간 생명체 안 배아를 수단으로 연구내용을 이 법안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복지부 시안은 배아연구를 넘어서 이물

통한 장기 생산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미 미국 생명공학 회사인 ACT 연구팀은 암소의 귀에서 채취한 세포 핵을 이용해 콩팥복제에 성공하였다. 복제배아의 생명윤리법은 곧 잉여배아를 이용한 인간 장기 복제의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생명과학자와 의사들은 어차피 폐기될 배아라면 불임연구나 장기 생산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과연 이 논리가 타당한가? 단적인 예로 시체가 써어 버릴 수 없는 이유 역시 인간 생명체 안 배아를 수단으로 연구내용을 이 법안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복지부 시안은 배아연구를 넘어서 이물

정자와 난자 제공자로부터 연구 목적 및 실험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다음 동의를 얻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안전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잉여배아 연구는 결국 생명의 근원인 여성에 대한 또 하나의

### 생산·보관 투명성 확보 난·정자 제공자 동의 등 안전장치 먼저 마련돼야

책취가 될 것이다. 배아가 인간이나 아니면 세포머리 리인가? 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종교의 물음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직 배아만이 여성 자궁에 착상되어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

라서 배아는 세포머리처럼 합부로 취급될 수 없고, 오직 인간 존엄성의 한계 내에서만 연구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러자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배아 생산 및 보관에 대한 투명성 확보요, 다른 하나는 생산되는 배아의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일이다. 이 두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임신을 목적으로만 배아 생산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시안은 하나의 탁상공문에 불과하게 된다. 왜냐하면 불임시술 의사가 임신했던 미명 아래 '무한대의 배아'를 생산한 다음, 수정 후 남은 배아를 연구용으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의 불임치료 현실이 이 두 조건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실제로 아직 보건 당국은 현재 불임치료 센터에서 배아를 어떻게 생산하며, 보



김상득 전북대 윤리학 교수

관중인 배아의 수가 어느 정도이고, 수정 후 남은 잉여배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 수정란의 수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법 제도 역시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배아의 생명은 오직 연구자의 자비심에 달려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윤리, 인공수정 전반에 대한 법 제도 및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지 않는 한, 잉여배아 연구는 생명체를 수단화하고, 나아가 생명체를 맛대로 파괴함으로써, 생명경시 풍조를 낳고 인간 존엄성 훼손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송도근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관리국장

## 열린 마당

정부가 '북한산 관통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하려 하자 불교계를 비롯 환경단체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번 공사를 반대해

### 찬성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외곽의 교통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서울외곽지역을 순환하는 총 연장 124km의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여 그 일부 구간인 일산-관교-외계원을 연결하는 92km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일산-외계원간 32km가 건설되지 않아 순환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동북부지역도동 노선·외계원지역, 23만명이 거주하는 교동노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가 작년에 착공되어 2006년 5월 완

철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선정한 최적의 노선이다. 물론 여건이 허용된다면 국립공원구역에 피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현상으로 초래된 동북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서는 국립공원구역 통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불가피성이 반영된 것이다. 국립공원내에 도로의 통과가 불가피 할 경우 선진외국에서도 터널을 건설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북한산, 소백산, 계

###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아하는 까닭과 추진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종교시민연대' 공동대표 일면스님의 의견과 건설교통부 송도근 광역교통관리국장의 말을 들어본다.

### 반대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다. 북한산 관통도로의 건설은 자연의 순리를 어기고 이기심과 탐욕을 따라 자연과 인간 모두가 공멸의 길로 나아가는 일이다. 북한산 도봉산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지정한 자연보전지역이며,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여 오염에 찌든 도시 하늘을 정화시켜주는 정화기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런 곳에 관통도로를 건설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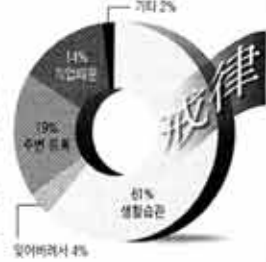


일면스님 북한산 관통도로저지 시민종교연대 공동대표

가 파괴된다. 한국 특산의 산개나리, 자생란을 비롯한 17종의 법적보호동물과 14종의 법적 보호식물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다. 둘째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30여 곳이 넘는 사찰의 수행환경과 불교문화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파괴하게 된다. 셋째 서울에서 공기사장이 가장 안 좋은 도봉, 노원구 등 서울 북부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다. 넷째 계획된 노선을 따라 도로가 건설되면 의정부 일대의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이다. 다섯째 수 Km에 달하

### 5계 파계 이유

붓다뉴스가 실시한 설문 에 참가한 불자 84명 가운데 52명(61%)이 생활습관 때문에 5계를 지키지 못한다고 고백했고, 16명(19%)은 주변의 유혹을 12명(14%)은 잊어버려서 4%



### "생활습관때문에" 61%

직업을 이유로 꼽았다. 5계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율목은 불음주(29명 34%)와 불망어(28명 33%)이고, 불부도가 지키기 어렵다고 답한 불자는 2명(2%)이었다. 역시 삶의 패턴이 지계의 권력을 가로막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자신의 지계 노력이 몇 점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80점 이상의 후한 점수를 준 경우는 26명(30%)이었고 60점이상이 31명(36%), 60점미만이 26명(30%)이었다. 일면대 기자

## 환경영향평가 최적노선

공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고속도로 노선 중 국립공원지역인 사패산 통과구간에 대하여 대안으로 의정부 북쪽의역을 통과하는 우회노선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노선은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교통량을 처리 할 수 없어 순환고속도로로서의 주요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도로연장 또한 10km나 늘어나게 되고 약 7천억원의 사업비가 더 소요 될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의 이전문제 등 장애요소 때문에 고속도로의 건설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고속도로노선은 전문가들이 2년 동안 조사·설계 한 것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관계 법령이 정하는

통산에도 터널이 건설되어 있다. 환경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원구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원의 최북측 사패산구간을 터널로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하였고 매년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터널 안에서 분해 처리하는 고가의 친환경 설비를 설치할 것이다. 또한 약 1천억원을 투입하여 터널양쪽에 각 300m 정도의 인공터널을 건설하여 식생 및 경관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학계전문가 및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환경관리반을 구성하여 터널건설로 인한 환경관리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 인간과 자연 공멸의 길

고 한다. 이곳에 왕복 8차선의 고속화 도로가 건설된다면 하루 14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을 할 것이다. 이는 필연적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며 생명을 지켜주는 거룩한 숲이 오염된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매연공장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시민 환경 종교계에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하려는 노선보다는 의정부 외곽으로 대안노선을 채택하여 도로를 건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산국립공원의 경관과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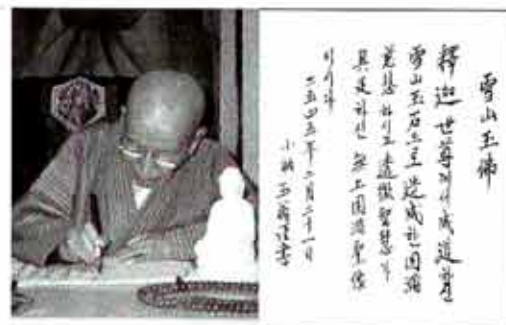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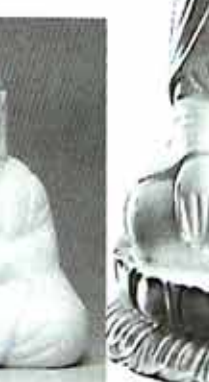
는 터널을 건설하는 것은 안전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미 터널의 입구지역은 90년대 말 폭우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지역이다. 여섯째는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문제점이다. 이 경우 해당기업은 이익보장을 위해 환경은장이 있는 사업을 강행해 기업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종교시민연대는 북한산 관통도로의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급속한 발달을 감안해 의정부 외곽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수도권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玉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www.korea-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세한빌딩 401호 TEL: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고불승림방장 서용 큰 스님 / 추천서

釋迦世尊의 慈悲로 雪山白玉佛을 조각하여 모십니다. 2002년 2월 21일 서용 큰 스님